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

최혜린** · 이수영*** · 박민숙****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그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리쇼어링은 기존의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으로는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등의 어려움, 그리고 낮은 신기술 접근성이 지적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혁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대만은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해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고기술 활용이 필요한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제분류 : B030103, B031003

핵심 주제어 : 리쇼어링, 미국, 유럽, 대만

*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년 연구보고서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06978, e-mail: hlchoi@ssu.ac.kr

*** 제1저자,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 Economics Department, Assistant Professor, 300 Pultney St, Geneva, NY 14456, USA, e-mail: sooyoung.a.lee@gmail.com

**** 제2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30147, e-mail: mspark@kiep.go.kr

I. 서론

오프쇼어링(offshoring)¹⁾을 되돌리는 행위로 정의되는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투자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말한다. 오프쇼어링으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 아래 여러 선진국에서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²⁾ 그러나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하여 실제로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와 업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한계기업을 지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언론은 해외 리쇼어링에 비해 한국의 리쇼어링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도하며 유턴기업지원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내놓았다.³⁾ 유턴기업지원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리쇼어링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가 크게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정책을 통해 리쇼어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산거점을 해외에서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은 해외투자회수나 해외공급처와의 계약 해지 등을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며, 그 근본적인 결정주체는 기업이다. 저임활용을 위해 오프쇼어링을 한 경우 노동비용절감효과를 포기할 만큼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리쇼어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리쇼어링의 목적이 국내 첨단기술 활용 등 국내 비교우위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만 하다.

-
- 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프쇼어링의 정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 p.1978)에 나타난다. 리쇼어링은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하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뜻한다. 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수행할 위치 결정 시, 인소싱(insourcing)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수행할지 또는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시장을 통해 외부에서 수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오프쇼어링과 결합하면 해외 인소싱과 해외 아웃소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르는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리쇼어링은 총 네 가지 형태(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 가능하다. 따라서 리쇼어링은 해외투자철회 혹은 해외공급처와의 계약종료(해지)를 수반하는 동시에 국내신규투자 혹은 국내공급처와의 계약을 필요로 한다.
 - 2) 유재민(2013)에 따르면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의 배경은 제조업 강화, 국내고용 증진, 외국인 투자의 대안의 세 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정책 추진의 배경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의 배경과 유사하다.
 - 3) 김만용(2018) 및 이종인(2017) 참고.

본 논문은 이러한 논증에 기반하여 리쇼어링이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여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리쇼어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평가하여 국내 리쇼어링 및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리쇼어링의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통계 조사 대상으로 선진국인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대만을 선택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구체적인 해외 통계는 미국을 예외로 하면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⁴⁾ 따라서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반면, 유럽과 대만의 현황과 정책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특히 정책 전문가와의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얻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리쇼어링 현황은 2018년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MAKERS 컨퍼런스와 Uni-CLUB MoRe 리쇼어링 리서치 그룹의 연구자인 L'Aquila 대학의 연구자들을 만나 얻은 자료들을 인용해 작성되었으며,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의 연구자들과의 대면 인터뷰와 Eurofound의 연구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에도 산업경제 및 추세연구센터(IEK), 중화경제연구소(CIER), 정부 관련 싱크탱크 연구소인 MIC(Market Intelligence & Consulting Institute) 등의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구 결과 미국의 경우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발생한 리쇼어링 건수는 694건⁵⁾에 이르지만 이러한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중간 규모의 기업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오프쇼어링 역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4) Gray et al.(2013)을 참고하면 리쇼어링을 학계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경 이후 언론이 리쇼어링에 주목한 이후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은 현상인 만큼 국제적인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5) 미국의 경우 과거 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 조달하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간주하므로 리쇼어링이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함.

되고 있다.

미국 리쇼어링의 주된 요인은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인데 반해서 유럽 리쇼어링의 주된 요인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그리고 R&D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고, 유럽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동화를 비롯한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 발 앞서 유턴투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만 복귀 의사가 있는 약 10%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홍콩증시와 대만증시의 상호 상장을 허가해주거나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에 이르기까지 255개의 기업이 복귀하여 448억 대만달러를 대만에 투자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 기업이 복귀하여 1,056억 대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미국, 유럽 및 대만의 리쇼어링 현상을 연구한 결과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대체할 수 있는 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거의 해외진출결정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은 국내의 인프라, 연구개발 환경, 인적자본 활용 등 국내비교우위에 맞추어 일어난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인 헤셔-올린(Heckscher-Ohlin)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정책 역시 국내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쇼어링이 줄 수 있는 효과는 저임금 노동 활용보다는 숙련노동과 첨단기술 활용에 맞추어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제Ⅲ장,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각각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 및 정책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한 결론을 제시한다.

Ⅱ.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 및 정책

1.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

미국의 리쇼어링은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0년 16개의 회사가 해외 생산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였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8개의 회사가 리쇼어링을 결정하였다(A.T. Kearney, 2014). 하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기존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 임금, 토지 가격, 에너지 비용이 낮은 텍사스 등의 동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리쇼어링 기업의 약 60%가 중국에서 회귀하였으며 약 20%의 기업이 멕시코에서 미국 내로 돌아왔다.

〈표 1〉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Reshoring cases in the U.S.)

(단위: 건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16	64	104	210	208	151	91	20

자료: A.T. Kearney 2018 Reshoring Index.

Source: A.T. Kearney 2018 Reshoring Index.

〈표 2〉 리쇼어링 지역, 2017년 기준(Reshoring cases by States, 2017)

주	일자리 수	기업 수
미시간주	8,359	32
아리조나주	8,235	8
알라바마주	6,016	14
테네시주	4,941	22
펜실베이니아주	4,288	32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Source: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표 3〉 리쇼어링 국가, 2017년 기준(Reshoring by country, 2017)

국가	일자리 수	기업 수
중국	28,388	721
멕시코	8,795	81
일본	3,585	27
캐나다	2,951	49
스페인	675	5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Source: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산업별로는 2017년 기준 리쇼어링 관련 창출된 일자리 중 운송장비 제조업이 36퍼센트를 차지하며 리쇼어링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기계 및 기기 제조업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의류 산업,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서도 다수의 리쇼어링이 관찰되었다. 미국 리쇼어링의 대표적인 예로 제너럴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GE)는 2009년, 2012년 각각 중국과 멕시코로부터 고품질의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생산 일부를 켄터키의 루이스빌과 위스콘신의 밀워키로 옮겨왔으며, 2013년 월풀(Whirlpool)은 세탁기 생산을 멕시코에서 오하이오주로 옮겨왔다. 또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는 2014년 캐딜락 SUV 생산을 멕시코에서 테네시주의 스프링힐로 옮겨왔으며, 2015년 포드(Ford)사는 에코부스트 터보 차저(EcoBoost Turbo Charger)⁶⁾ 엔진 생산을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로 옮겨왔다.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배경에는 개도국의 임금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외 운송 및 창고 비용, 렌트비, 공급자 관리 비용 등의 생산 비용 증가 등이 있다. 실제 중국의 근로자 임금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매년 19% 증가하여,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EPRS, 2014). 2005년에 중국 임금 수준은 미국의 약 10%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미국 임금의 37%로 증가하였다.⁷⁾ 아시아 국가의 실질 임금도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매년 7.5% 증가하면서 미국과 개도국 사이의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기존 개도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은 주로 저임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더 이상 미국 기업은 개도국의 저임금으로부터 충분한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2014년 A.T. Kearney 서베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오프쇼어링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운송 시간 및 운송비를 줄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

6) 포드사의 연료효율을 강화한 엔진 브랜드 이름(<https://www.ford-korea.com/ecoboost/>).

7) http://www.iedconline.org/clientuploads/Downloads/Reshoring/Supporting_Reshoring_Toolkit.pdf.

근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운반 비용 증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 부족 등이 리쇼어링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위에 언급된 요인들은 미국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푸쉬(push) 요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미국 국내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의 회귀를 유인하는 다양한 풀(pull) 요인이 기업의 리쇼어링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국내의 풍부한 고속련 노동자, 자동화 및 혁신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낮은 에너지 비용,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의 경영 환경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에 우호적인 제도 및 정책 역시 리쇼어링의 주요 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에너지 비용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전기 요금은 약 8% 증가한데 반해 미국 내에서는 셰일 가스 공급 증가로 비용이 감소하면서 미국 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고속련 전문가가 풍부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R&D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재산권 및 특허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은 혁신 기술 및 새로운 상품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들은 Made in USA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최근 월마트가 국내 인소싱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결정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위에서 언급한 리쇼어링의 푸쉬 및 풀 요인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리쇼어링 요인(Reshoring factors)

푸쉬 요인	풀 요인
제품 품질	정부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
운송 및 화물 비용	고객 및 시장 접근성
개도국의 임금 인상	풍부한 고속련 노동자
재고 비용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동 시간	기업의 사회적 공헌

주: Reshoring Initiative의 5,000개 이상의 공식 문서, 케이스 스터디 및 비공개 문서들을 바탕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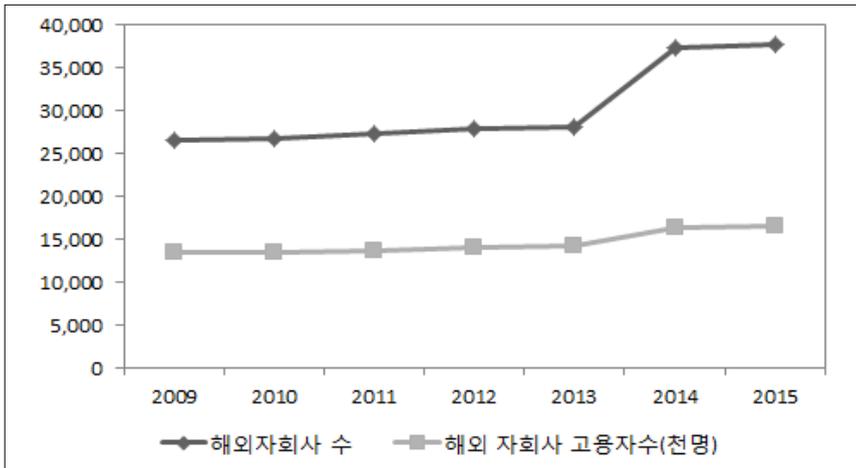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Note: The factors are based on the Reshoring Initiative's more than 5,000 published articles, Reshoring case studies, and some other privately documented cases.

Source: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하지만 여전히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주요 트렌드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관찰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Oldenski (2015)는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국 전체 고용의 4.6%에 해당하며, 미국 다국적 기업이 25,000개의 해외지사를 설립한 것에 비해 리쇼어링 수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주요 트렌드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Cohen and Lee(2015)도 기업의 의사결정은 항상 변화하며 리쇼어링만큼 오프쇼어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다국적 기업에 의한 오프쇼어링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총매출 및 미국 내에서의 매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OECD 해외직접투자 통계 중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포지션 비중은 2010년과 2017년 사이 30-40%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4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1> 미국 다국적 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of U.S. multinational firms)



주: 자산, 매출, 순소득이 2,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자회사만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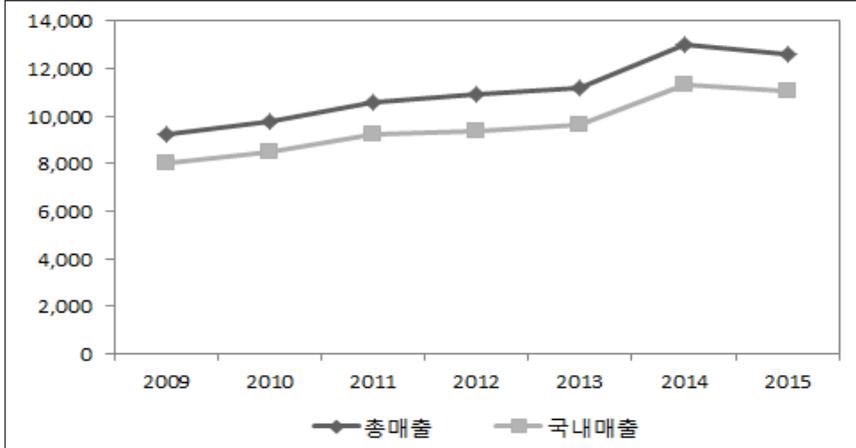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lusdop.htm>.

Note: The foreign affiliates with more than 2,500 million dollars of asset, sales, and net income are only included.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lusdop.htm>.

〈그림 2〉 미국 다국적 기업의 총매출 및 국내매출(Total sales and domestic sales of U.S. multinational firms)

(단위: 천 달러)



주: 자산, 매출, 순소득이 2,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자회사만 포함하고 있음.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lusdop.htm>.

Note: The foreign affiliates with more than 2,500 million dollars of asset, sales, and net income are only included.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lusdop.htm>.

A.T. Kearney 보고서 역시 오프쇼어링이 리쇼어링을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미국 다국적 기업은 생산설비를 한 국가에서 국내가 아닌 다른 제 3국으로 이동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코치(Coach)는 지갑 및 핸드백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이동하였고, 청소용품 및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카사벨라(Casabella)와 산업용 보관장을 생산하는 비아시스템은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미국의 일부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 및 다양한 이유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선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주요 트렌드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2000년대 해외로 진출했던 미국 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생산 라인을 국

내로 옮겨오면서 리쇼어링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National Economics Council(2016)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기업 경영진의 리쇼어링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약 53%가 중국의 생산 설비를 국내로 옮겨올 예정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딜로이트를 인용해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이 약 2.5-5백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첨단 제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에 관한 보고서(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를 발표하고 제조업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제조업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조업은 수출, 고용, 지식 생산 및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2000년대 이후 국가 소득 및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첨단기술 제조업 부문의 무역 수지는 2001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2003년 170억 달러의 무역적자 폭은 2010년 81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분야의 리더십 지위를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국 및 다국적 기업의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R&D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12년 8월 발표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The Obama Administ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에서는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이러한 흐름 하에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6년 발표된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역시 제조업이 혁신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언급하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기업 친화적 환경 마련이라는 틀 안에서 세금 감

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그리고 R&D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에는 미국 복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었고, 'Make it in America Initiative'에서는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돌아 오도록 촉구하였다.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는 제조업, 기술, 에너지, 그리고 가치 네 가지 분야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아웃소싱 제한, 인소싱 장려를 제안하였다. 미국 기업의 해외 이윤에 최소 세금을 부과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세금 특혜를 없애고 다른 나라가 낮은 세금으로 미국 기업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외에도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 늘리기 위해 중국 포함 불공정 무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무역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회는 2010년 7월 미국의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고자 'Make it in America'를 시작하였고, 이후 기업가 정신 및 혁신 확대, 기술 격차 해소, 21세기 인프라 개발, 제조업 장비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Make it in America'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제공 및 세금 감면, 신속한 특허 행정절차, 고속열 노동자 훈련 등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리쇼어링과 관련된 법안은 아웃소싱 제한과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법안이다. 아웃소싱 제한(Preventing Outsourcing)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없애 오프쇼어링을 장려할 수 있는 조세 법률상의 허점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법안(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은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기업, 근로자, 그리고 학계와의 면담을 통해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 상무부 아래 경제발전부(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A)는 미국국립 표준기술제조업확장파트너십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NIST MEP), 고용 및 직업훈련부(U.S. Department of Labor'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그리고 델타 지역당국(Delta Regional Authority)과 함께 'Make it in America Challenge'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의 생산성 높은 분야의 리쇼어링, 외국인투자기업 촉진, 미국 기업의 국내 생산 유지 및 확장, 그리고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근로자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리쇼어링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비용 및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오프쇼어링의 총 비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지역 비용평가(Assess Costs Everywhere, ACE)'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전지역비용평가 시스템은 미국 상무부가 제조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기업들의 위치 결정을 돕는 비용평가 프로그램이다. 즉 오프쇼어링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위험을 제시하고 공적 및 민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의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때 비용에는 임금 및 운반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10가지 비용과 위험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용 계산 후에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례 및 그 외 미국 상무부가 제공하는 지원들을 소개함으로써 미국 내 실제 비용 및 위험이 낮은 것을 홍보하고 오프쇼어링에 대해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리쇼어링 기업의 성공 사례, 미국 산업 정책 홍보 자료 등 미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도 활용하고 있다.⁸⁾

이처럼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고임금, 상위 기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IT 및 반도체 산업 등의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같은 장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같은 단기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의된 'Bring Jobs Home Act(S. 2569)'는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세금공제를 철폐하는 반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총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⁹⁾

8) <https://www.eda.gov/archives/2016/challenges/MakeItInAmerica/index.htm>(검색일: 2018.7.4.).

9) 이 법안은 2014년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에 재발의된 바 있다. CONGRESS.GOV,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추진과 함께 기계 제조업자 연합회 회장이었던 Moser는 2010년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www.reshorenow.org.)를 창설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회귀하도록 격려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목적으로 리쇼어링의 성공 사례 및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 총 비용 견적서(Total Cost of Ownership Estimator)를 무료로 제공해 기업들이 부품 구매 및 공급자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쇼어링 도서관은 3,500개 이상의 리쇼어링에 대한 기사 및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리쇼어링 기업들로 하여금 리쇼어링 이유, 과정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홍보하고 있다. 또한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들의 전반적인 위치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Ⅲ. 유럽의 리쇼어링 현황 및 정책

1. 유럽의 리쇼어링 현황

유럽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오프쇼어링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유럽경제공동체 형성 이후 노동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유럽의 높은 임금과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유럽 제조 기업이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오프쇼어링 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다. MAKERS¹⁰⁾ 보고서¹¹⁾에 따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2569>,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7>(검색일: 2018.5.4).

10) MAKERS는 EU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Horizon 2020'에 속한 프로젝트로 EU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혁신, 리쇼어링,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룸.

11) 2018년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MAKERS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받은 자

르면 유럽 국가 중 스웨덴과 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기업 중 약 9%가 리쇼어링 기업으로 리쇼어링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벨기에, 슬로바키아는 전체 기업 중의 약 6%가 리쇼어링 기업이며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의 경우에는 기업의 약 4-5%가 리쇼어링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유럽국가의 리쇼어링(The share of reshoring firms in Europe)

(단위: %)

국가	리쇼어링 기업 비율
스웨덴	9
아일랜드	8.7
벨기에	6.3
슬로바키아	6.0
프랑스	5.6
덴마크	4.3
핀란드	4.3

주: 전체 기업 중 리쇼어링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Measuring reshoring trends in the EU and US, MAKERS, p.23.¹²⁾

Note: The numbers are rate of reshoring firms to all firms.

Source: Measuring reshoring trends in the EU and US, MAKERS, p.23.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리쇼어링을 조사한 Uni-CLUB MoRe reshoring 데이터¹³⁾에 따르면 리쇼어링 건수는 총 727건으로, 이는 590개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한 기업 당 평균 1.23개의 리쇼어링 결정을 내렸다. 국가별 리쇼어링 건수로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173건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132, 117건을 기록하였다. 국가별 리쇼어링 건수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료를 인용함.

12) 2018년 5월 이탈리아의 L'Aquila University의 Lelio Lapadre, Luciano, Fratocchi, Cristina Di Stefano 연구자들과의 면담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함.

13) 이 데이터의 집계는 2007년부터 이루어졌고, 집계방법은 언론검색으로 뒤에 나오는 European Reshoring Monitor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함.

〈표 6〉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Reshoring of Europe countries)

(단위: 건)

국가	리쇼어링	국가	리쇼어링
이탈리아	173	슬로베니아	5
프랑스	132	에스토니아	3
영국	117	크로아티아	2
독일	85	아일랜드	2
스페인	56	슬로바키아	2
스웨덴	44	체코	1
네덜란드	25	덴마크	1
핀란드	18	그리스	1
노르웨이	14	라트비아	1
덴마크	13	룩셈부르크	1
폴란드	10	포르투갈	1
스위스	8		
벨기에	7	총합	727

자료: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Source: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유럽의 오프쇼어링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진행된 반면 리쇼어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Heikkila, Martinsuo, and Nenonen, 2018). Uni-CLUB MoRe reshoring 데이터에 따르면 727건 중 390건은 대기업의 리쇼어링이고, 331건은 중소기업에 의한 리쇼어링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항공우주 산업, 방위 산업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행과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의류 산업에서도 리쇼어링이 관찰되고 있다.¹⁴⁾ 유럽 표준산업분류(NACE)에 따른 리쇼어링 현황은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특히 기술별로 산업을 구분해서 보면 첨단기술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반면,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리쇼어링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표 8〉 참조).

14) <http://www.ey.com/uk/en/newsroom/news-releases/15-02-16-re-shoring-presents-15-billion-opportunity-for-the-uk-economy>(검색일: 2018.4.4.).

〈표 7〉 산업별 유럽 리쇼어링 현황(Reshoring by industry)

		(단위: %)
산업코드	산업명	비율
C15	가죽 및 관련제품 제조업	11.6
C14	의복 제조업	11.1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8
C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용품 제조업	9.5
C27	전기장비 제조업	9.1
C32	기타 제조업	6.5
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1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6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5.2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
C10	식품 제조업	4.7
C31	가구 제조업	3.3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C21	기초 의약품 및 약품용물질 제조업	2.2
C13	섬유제품 제조업	1.8
C24	1차 금속 제조업	1.8
C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
C17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7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
C11	음료 제조업	0.6
C12	담배 제조업	0.1
C33	기계·장비 수리 및 설치 공사업	0.1

자료: Stefano, Fratocchi, and L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Source: Stefano, Fratocchi, and L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표 8〉 산업기술별 유럽 리쇼어링 현황(Reshoring by technology level)

		(단위: %)
산업기술별	리쇼어링 기업 비율	
첨단기술(High tech)산업		7.5%
중고기술(Medium-High tech)산업		5.3%
중저기술(Medium-low tech)산업		3.0%
저기술(Low tech)산업		2.7%

주: 2010-2012년 EMS(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기업 3,293개 대비 비율로 계산됨.

자료: Dachs and Zanker (2015), p.4.

Note: The data is based on EMS(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between 2010 and 2012, and it is a ratio of total firms of 3,293.

Source: Dachs and Zanker (2015), p.4.

국가별로는 지난 10년 동안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난 중국과 인도, 2004년도에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주로 관찰되며, 이 외에도 독일 같은 서부유럽 국가들과 미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도 다수 관찰된다(Dachs and Zanker, 2015, p.6). Uni-Club MoRe reshoring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이 35.1%로 가장 높고,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으로부터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각각 24.9%, 17.3%로 그 뒤를 잇는다. 국가별 리쇼어링 현황은 아래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유럽 리쇼어링의 약 80%는 오프쇼어링 이후 3-4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기존 오프쇼어링 결정을 번복하면서 발생하는 리쇼어링이며, 그 외 20%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 결정으로 간주된다.

<표 9> 국가별 유럽 리쇼어링 현황(Reshoring by country)

국가		리쇼어링	
아시아	중국	255(35.1%)	
	중국 이외 아시아	84(11.6%)	340(46.8%)
	일본	1(0.1%)	
유럽 & 러시아	동유럽 & 러시아	126(17.3%)	307(42.2%)
	서유럽	181(24.9%)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 중동	28(3.9%)	
	남아프리카	1(0.1%)	31(4.3%)
	아프리카	2(0.3%)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7(1.0%)	
	중앙 & 남아메리카	7(1.0%)	26(3.6%)
오세아니아	미국	12(1.7%)	
	호주	1(0.1%)	1(0.1%)
	기타		22(3.0%)
	총합		72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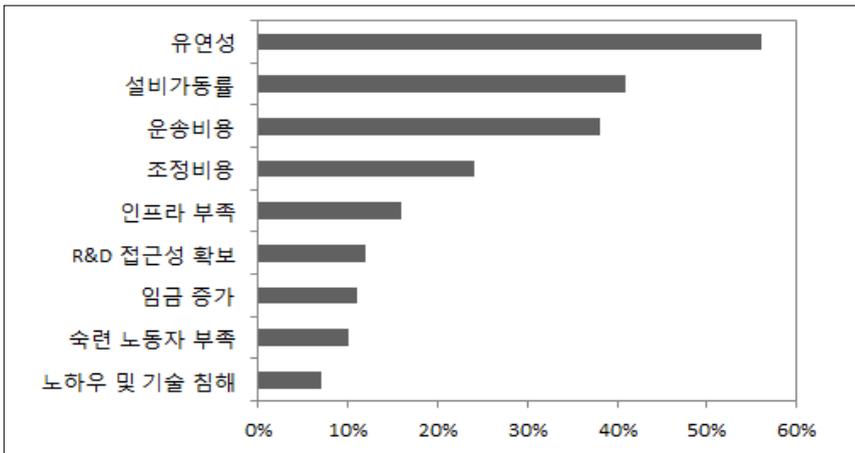
자료: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Source: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유럽의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은 품질 관리 및 유연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이 생산비 상승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Kinkel and Maloca(2009)의 2006년 독일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으로 공급탄력성(72%), 제품 품질(60%), 높은 경영 비용(16%), 인프라 부족(15%), 인적자본 부족(9%)

등이 지적되어 생산 비용보다 질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제조 기업을 조사한 Bailey와 De Propris(2014)은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으로 운송 비용(62%), 제품 품질(52%), 공급망 문제(39%), 환율 변화(31%), 임금 상승(31%), 적체시간 소요(31%), 그리고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부족(31%)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급망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일본 쓰나미와 태국의 홍수 사태를 겪으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3〉 유럽 리쇼어링 요인(Reshoring factors)



주: 2010-2012년 EMS(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기업 3,293개 대비 비율로 계산됨.

자료: Dachs and Zanker (2015), p.7.

Note: The data is based on EMS(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between 2010 and 2012, and it is a ratio of total firms of 3,293.

Source: Dachs and Zanker (2015), p.7.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돌아온 리쇼어링 유인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 돌아온 기업의 경우 운반 시간 및 지연, 'Made in X' 효과, 고객과의 근접성을 리쇼어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데 반해, 동유럽에서 돌아온 기업의 경우 낮은 품질, 'Made in X' 효과, 자동화, 혁신 제품 및 신기술 활용 등을 리쇼어링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리쇼어링이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기술 접근 및 활용이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쇼어링의 요인 중의 하나로 신흥국의 임금 상승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신흥국의 임금

은 유럽 국가의 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반면 유럽 국가의 높은 에너지 비용, 제한적 규제, 금융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 등은 오히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럽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오프쇼어링 추진 당시 오프쇼어링 자체와 그리고 오프쇼어링 국가에 대한 관련 지식 부족으로 기존 의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사와 생산 공장의 물리적 거리는 관련 운송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감독 및 조정을 어렵게 하였고, 복잡한 제품 생산 및 생산 과정 효율화와 관련된 지식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산의 비효율화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오프쇼어링 당시 관련 요소 및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오프쇼어링을 추진하였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유럽의 리쇼어링 대부분이 해외로 진출한지 약 4-5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오프쇼어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리쇼어링으로 추측된다(Kinkel and Maloca, 2009).

또한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at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의 연구자 Matteo Fiorini와 Alessandro Ferrari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sation of manufacturing)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제품 제조 및 판매에서 생산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과 생산활동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R&D 센터와 생산라인이 같은 지역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Alcacer and Delgado, 2013; Berry, 2014). 실제 프랑스의 안경 제조회사인 아톨(Atol)은 R&D 기술을 활용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2007년 중국 생산 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하였으며, 스포츠 제품 회사인 데카르톤(Decathlon)은 제품 연구 결과를 제품에 바로 적용해보고 또한 신기술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생산 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트라는 특수 상황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되고

수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리쇼어링이 더욱 촉진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맥라렌(MaLaren)은 셰필드에 공장을 세우고 고성능 차량 생산을 옮겨왔고 약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¹⁵⁾ 그 외 식품산업에서도 리쇼어링이 나타났는데 전 세계 제과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캐드버리(Cadbury)는 밀크 초콜릿(Dairy Milk) 생산 전체를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옮겨왔다.¹⁶⁾ 캐드버리의 북유럽 지사장인 글렌 카턴(Glenn Caton)에 따르면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독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노동의 존도를 줄이고 기계 자동화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고 밝혔다.¹⁷⁾ 또한 영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가장 큰 4G 네트워크 기업인 EE는 모든 고객 콜센터를 영국과 아일랜드로 옮겨왔으며, 통신회사인 BT와 보다폰(Vodafone)도 남아프리카, 인도, 이집트에 있던 고객센터 센터를 국내로 옮겨왔다.

이처럼 최근 상당수의 리쇼어링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럽 제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독일 제조 기업의 약 3%가 리쇼어링을 선택한 반면 약 9%의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핀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프쇼어링이 리쇼어링보다 약 2.3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Heikkila, Martinsuo, and Nenonen, 2018). 또한 Dachs and Zanker(2015)에 따르면 2010-2012년 기간동안 리쇼어링 기업은 전체 기업의 4%로 매우 낮으며, 이 또한 2007-2009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중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포지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50-60%를 유지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6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리쇼어링

15)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17/02/08/mclaren-reshores-work-opens-new-factory-sheffield/>(검색일: 2018.5.30.).

16) <https://www.telegraph.co.uk/news/2017/04/06/cadburys-comes-home-dairy-milk-production-set-return-uk/>(검색일: 2018.5.30.).

17) <http://www.bqlive.co.uk/midlands/2017/04/10/news/dairy-milk-production-returns-to-bournville-25564/>(검색일: 2018.5.4.).

이 유럽의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2.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

유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조업 부활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¹⁸⁾ EU는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 EC)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리쇼어링을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산업 부흥(Renaissance of Industry for Sustainable Europe Strategy)'의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유럽전략 2020(Europe Strategy 2020 Program)에 명시하였다. 리쇼어링 정책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복귀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관여되어있는 다른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까지 증가시키므로 제조업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은 저임금 활용을 위해 해외로 나간 제조 공장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자 개개인 필요에 맞춘 디자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제조업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임금 비중이 낮으므로 국내 고임금 요소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은 일자리 창출 목적보다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 혁신과 관련되어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의 자동화 및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선진 기술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제 Kinkel and Jager(2017)은 약 2,000개의 제조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디지털화와 리쇼어링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즉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국내로 회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인더스트리 4.0이 리쇼어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기술 혁

18) 『Manufacturing reshoring and its limits: the UK automotive case』,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2014, Vol(7), p.383.

신은 노동 의존도를 낮춰 저임금 국가로 오프쇼어링하는 유인을 낮추는 반면 국내 공장의 규모의 경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고, 또한 주문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생산 형태(customized production)로 변화하면서 고객 근처에 위치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하였다.¹⁹⁾

유로파운드(Eurofound)²⁰⁾는 유럽연합집행기관으로부터 2015-2018년 ‘유럽 제조업의 미래(Future of Manufacturing in Europe)’ 프로젝트 수행을 위임받아 그 일환으로 이탈리아 대학교 재단인 Uni-CLUB MoRe 리쇼어링 리서치 그룹²¹⁾과 함께 European Reshoring Monitor(ERM)을 운영하고 있다. ERM은 신문 등의 미디어 자료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럽 기업의 리쇼어링 사례를 수집하고 또한 리쇼어링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정책 보고서, 사설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유럽의 리쇼어링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RM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5월까지 파악한 유럽의 리쇼어링 건수는 총 184건²²⁾이고 164개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져, 각 기업 당 평균 1.12개의 리쇼어링 결정을 내렸다. 유럽 기업이 철수 또는 축소한 국가는 중국 29.3%, 유럽 50.5%, 북아메리카 3.3% 등으로 나타나며, 또한 164건의 리쇼어링 사례 중 142건은 제조업에서 나타났다.

국가별로 리쇼어링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은 2011년부터 시작된 하이테크 전략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틀 안에서 리쇼어링을 추진하였다. 인더스트리 4.0은 2006년 8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첨단기술전략’의 산업관련 정책으로 기존의 제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공정 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지향하는 제조업 혁신을 추구한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으로 혁신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선진 기술 및 신제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였다(Blanchet, Thieully, Rinn, and Thaden, 2014).

19) Measuring reshoring trends in the EU and the US, MAKERS.

20) 유로파운드는 유럽전략 2020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EU 산하기관임.

21) 이탈리아의 Bologna, Catania, L'Aquila, Modena&Reggio Emilia 그리고 Udine 대학교의 경영공학 교수팀으로 구성됨.

22) ERM에서는 1)기존에 다른 EU 국가로 오프쇼어링 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유럽 기업, 2)기존에 EU 이외 국가로 오프쇼어링 했다가 EU 국가로 되돌아오는 유럽 기업, 3)유럽내에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비유럽 기업, 4)기존에 EU 이외 국가로 오프쇼어링 했다가 EU 국가로 돌아오는 비유럽 기업을 모두 포함함.

그리고 가상 물리 시스템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 임금 의존도를 낮출 때에만 고임금 국가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실행가능 할 것으로 보았다(Muller, Dotzauer, and Voigt, 2017, p.166). 앞서도 언급한 Kinkel and Jager(2017)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첨단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10배 이상 리쇼어링 경향이 높은 것을 보였다. 즉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자동화 및 생산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기업의 유연성 및 개인의 요구에 맞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쇼어링은 생산의 자동화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크지 않지만, 리쇼어링 기업의 장비 및 인프라 구입 그리고 중간재 및 서비스 구입을 통해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Kinkel and Jager, 2017). 이와 같이 리쇼어링을 인더스트리 4.0의 틀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유럽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무역투자부(UK Trade and Investment)²³⁾와 제조업자문서비스(Manufacturing Advisory Service)²⁴⁾는 2014년 Reshore UK를 세우고 원스톱샵(One-stop-shop)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영국 정부는 영국 리쇼어링 기업에게 매칭 및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경영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다. 특히 제조업자문서비스는 중소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영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선진 공급 체인망(Advanced Manufacturing Supply Chain)'을 통해 근처 지역의 공급자와 연결해 주는 등 공급체인망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중간재 공급자가 영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자본 및 기술 투자 자금을 지원하였다. Reshore UK는 영국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이후 영국 외국인직접투자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리쇼어링 정책은 현재 실시되지 않는

23) 2016년 7월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로 변경됨.

24) MAS는 기업, 혁신 및 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영국 중소기업에게 전략, 프로세스 개선, 신제품 출시, 공급망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의 산업부흥부(Ministry for Industrial Renewal)는 콜베르 2.0(Colbert 2.0)을 통해 리쇼어링의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US Reshoring Initiative를 참조하여 2013년 7월에 웹사이트(www.colber2-0.fr)를 열고, 기업들이 설문 작성을 통해 기업 자신이 리쇼어링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였고 정부와 일대일 면담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콜베르 2.0정책 역시 프랑스의 정권이 바뀌면서 활발하게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활발하던 리쇼어링 정책이 주춤한 것에 대해서 유로파운드의 전문가 는 두 가지 배경을 제시하였다.²⁵⁾ 첫 번째는 리쇼어링 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리쇼어링 현상이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리쇼어링은 제한된 현상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을 자발적으로 하였듯이 리쇼어링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영국과 프랑스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유로파운드에서 리쇼어링 연구를 이끌어온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만 하다.

그 외 네덜란드 경제부는 네덜란드 외국인투자기관(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을 통해 외국기업에 기업 설립 및 확장에 관련된 자문 및 도움을 제공하는데 2013년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6억 유로의 특별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리쇼어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에밀리아-로마냐는 지역법 14/2014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에몬테주는 지역법 34/2004를 통해 원래 피에몬테주에 있던 기업이 리쇼어링한 경우 50인 이상 기업이고 리쇼어링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25) Eurofound, John Hurley, Research Manager, Employment 전화인터뷰 (2018.5.14.).

IV.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 및 정책

1.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

대만의 초기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대만으로 유턴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자연미(自然美)²⁶, 왕왕(旺旺)²⁷, 한중정기(漢鐘精機)²⁸가 있다. 정책의 시행 초기 각 기업이 대만으로 투자를 확대한 이유는 상이하다. 먼저 자연미의 경우 전문 미용기업으로 대만 내 투자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약 20억 대만달러의 투자확대를 계획했다. 왕왕의 경우 대만 증시 상장 등의 이유로 유턴을 계획했다. 한중정기는 대만의 공업연구원과 기술협력을 위해서 대만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대만기업이 중국 대륙에서 유턴하여 서비스업 분야로 신규투자를 확대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라면생산업체인 캉스푸(康師傅)와 컴퓨터, 전자기기 분야 제조회사인 폭스콘(鴻海精密工業股份有限公司)이 그 예이다. 캉스푸는 대만식품 기업인 텡신(頂新)의 자회사로 1992년 대륙에 진출 후 라면시장 점유율 56.4%를 차지(2012년 기준)하는 등 대륙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이후 대만 부동산에 활발히 투자(대만101건물 구입) 하고 있으며, 아이폰 생산 공장으로 유명한 폭스콘의 경우 대만으로 유턴 후 텔레콤에 투자하였다.²⁹

대만 정부는 활발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255건의 유턴투자(448억 대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 11,831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중국대륙으로부터 유턴한 투자는 194건에 달하여 전체 유턴투자의 82%를 차지했다(〈표 10〉 참고). 한편, 대만으로 유턴한 투자는 대부분 전기·전자산업(電子)으로 투자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북부지역에 89건(99억 대만달러)

26) 자연미 기업은 1972년에 설립된 미용(피부관리, spa, 건강식품 등) 전문기업으로 베이징, 광저우, 충칭, 청두 등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2,000개의 지점 및 가맹점과 130개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다(바이두 검색: 2018년 5월 기준). 1991년 홍콩증시에 상장 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자연미 기업은 상하이, 홍콩, 타이완을 거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하이 및 홍콩의 경영수익이 매년 30%이상 고속 성장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타이완의 수익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27) 왕왕기업은 1989년에 설립된 식품기업으로 대륙, 일본,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해 있다. 최근 의료, 음료, 농업, 부동산 등 산업에 진출했다.

28) 한중정기는 2004년에 설립된 압축기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9) 자책회산업정보소(MIC) 지역연구 진자양(陳子昂) 총감 인터뷰(2018.5.16.).

이 투자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³⁰⁾

〈표 10〉 대만의 리쇼어링(Reshoring cases in Taiwan)

(단위: 개, 억 대만달러)

기간	중국		기타지역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9월-12월	4	19	19	3	23	22
2007년	54	121	22	21	76	142
2008년	111	188	18	17	126	205
2009년 1월-3월	25	78	2	1	27	79
총합	194	406	61	42	255	448

주: 기타지역은 북미 36건, 동남아 144건, 기타 11건을 포함함.

자료: 대만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強輔導台商回台投資措施)".

Note: The rest of the areas includes 36 cases from North America, 144 cases from East Asia, and 11 cases from other countries.

Sour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09), "Instructions for reshoring investments of Taiwanese firms"

그리고 최근 리쇼어링 추세를 살펴보면 유턴투자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매년 목표치를 소폭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5년 유턴기업의 투자실적은 541억 대만달러에 달해 연간목표 금액(535억 대만달러)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6년(상반기) 기준 325억 대만달러가 투자되어 연간 목표 투자액의 60.7%를 달성하였다(〈표 11〉 참고).

〈표 11〉 최근 유턴기업 현황, 2010-2016(Reshoring cases for the year of 2010-2016)

(단위: 개, 억 대만달러, %)

기간	유치건수	유치금액	유치목표	달성률
2010	107	409	380	107.6
2011	62	469	450	104.2
2012	57	519	500	103.8
2013	48	529	520	101.7
2014	46	540	535	100.9
2015	44	541	535	101.1
2016년 상반기	18	325	535	60.7

자료: 경제부 투자업무처;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2017).

Sour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10); KOTRA Taipei official(2016).

30) 대만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強輔導台商回台投資措施).'

대만기업이 유턴하는 이유는 중국 내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와 연구개발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이다. 대만 경제부는 2011년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전담계획(促進台商回台投資專案計劃)에 따라 유턴 희망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만기업이 유턴을 희망하는 이유로 유턴 후 산업 업그레이드, 대만의 투자환경 개선, 연구개발 관련 지원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대만으로 유턴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이며, 단순히 비용 때문이라면 중국 연해에서 대륙으로 이전하거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이다.³¹⁾

2.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

대만정부가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플랫폼(경제부 투자처, 經濟部投資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대륙으로 제조업 공장 이전이 확대³²⁾되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와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다. 대만의 리쇼어링 기업지원의 주관기관은 경제부 투자업무처(經濟部投資業務處)이며, 리쇼어링³³⁾ 및 해외진출기업의 지원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2006년 해외투자기업 유턴투자 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加強協助台商回國投資措施暨細部計畫)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1월 대만기업의 유턴투자추진 전담부서(促進台商回台投資專案小組)를 조직하고, 2007년 7월 단일화된 서비스창구를 개설(台商回台投資服務公司)³⁴⁾하였다. 2006년부터 대만이 적극적으로 리

31) 자책회산업정보소(MIC) 지역연구 진자양(陳子昂) 총감 인터뷰(2018.5.16.).

32) 1990년 대만정부가 대만기업의 중국대륙 투자를 허가하면서 중국 대륙은 대만기업의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함. 대만의 중국대륙 투자는 2011년 131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7년 87.4억 달러에 달함(대만경제부투자심의회 통계, 2018년 5월 기준).

33) 대만의 리쇼어링은 해외거점 철수 후 국내 유턴뿐만 아니라 해외거점을 유지한 채 대만 내 추가법인 설립도 리쇼어링의 일부로 포함하여 관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리쇼어링 정의보다 광범위함.

34) 2014년 7월 개설.

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정책의 수요 때문이다. 1980년부터 대만기업의 해외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중국대륙으로 진출했다. 중국으로 진출한 대만기업의 수는 37,232개(투자금액 761.3억 달러)이며, 전체 해외투자의 약 56%에 달한다(2009년 2월 기준). 하지만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개발, 산업고도화,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중국내 비용 상승³⁵⁾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2008년 8월 대만 전자전기협회(台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가 대륙에 진출한 2,612개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中國大陸地區投資環境與風險調查)에 따르면, 대만으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1.83%에서 9.88%로 전년대비 5배 증가했다.³⁶⁾

한편 양안경제 활성화 조치들에 힘입어 양안 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대만정부가 해외 진출, 특히 중국 대륙에 진출했던 대만기업들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턴기업의 정책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대만정부는 2008년 유턴기업에 대한 총 4조 대만달러(143.8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재건 345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에는 유턴투자 배증 금의환향계획(台商回流陪增衣錦還鄉計劃)³⁷⁾을 실시하여 유턴을 장려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홍콩증시와 대만증시의 상호 상장을 허가해 기존에 중국대륙으로 투자했던 대만기업들이 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2009년 4월에는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強輔導台商回台投資措施)’를 추가로 발표했다. 상기 정책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255건의 유턴투자(448억 대만달러)가 시행되었으며, 총 11,831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시행된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장려(鼓勵台商回台投資措施)’ 정책 에서는 세금감면, 토지제공³⁸⁾, R&D 지원, 자금지원 등에 대한

35) 신 소득세법 시행(2008년 1월)에 따라 외자 기업의 법인세가 15~24에서 25%로 인상됨.

36) 공업기술연구원, (황단제)黃丹齊 연구원, (리수형)李修瑩 연구원 인터뷰(2018.5.16.).

37) 2009년에 실시된 금의환향계획에서는 대만기업의 투자목표를 350억 대만달러로 설정하고 선두기업의 대만유턴을 위해 전용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대만기업이 유턴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함.

38) ‘006688專案’조치를 통해 국가 산업단지에 유턴기업이 입주할 경우 초기 2년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3~4년차에 임대료의 40%할인(임대료 60%납부), 5~6년차에 임대료의 20%할인(임대료 80% 납부), 입주 7년차부터 임대료 100%를 납부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유턴 기업들에게 6대 신흥산업³⁹⁾과 4대 스마트 산업⁴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상품화 등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대만정부는 혁신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미 2009년부터 대만의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기술업그레이드 지도계획(台商回台技術升級轉型輔導計劃)’을 통해 16개 재단법인이 무료로 기술 진단 및 연구개발 지도를 추진했다.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60만 대만달러를 2년간 총 320만 대만달러(총 투자의 50% 한도)를 지원하는 기술개발계획(協助傳統產業技術開發計劃)도 시행하였다.⁴¹⁾

대만 경제부는 2011년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전담계획(促進台商回台投資專案計劃)에서 유턴 희망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현재 혹은 향후 3년 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25.1%에 달했다. 대만정부는 자국기업의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여 2012년 ‘대만기업의 국내유턴 투자 추진방안(加強推動台商回台投資方案)’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지원책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6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했다. 정책에 따르면 대만 리쇼어링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이외 지역 및 국가에 투자한지 2년 이상 된 기업으로 투자를 3년 내 시행해야 하는 동시에 적용조건⁴²⁾에 부합해야 한다. 대만정부가 유턴기업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R&D센터의 설립과 R&D분야의 투자여부이다. 지원정책 규정상 대만 내 투자금액이 첨단과학 산업의 경우 5억 대만달러 이상, 기타산업의 경우 1억 대만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또한 기업의 투자 후 1년 내 대만에 10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본 정책 하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서비스 창구의 컨설팅부터 시작된다. 관련 컨설팅은 대만행정원 글로벌 투자유치 서비스 센터에서 시

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9) 6대 신흥산업은 그린에너지(綠色能源), 바이오 기술(生技), 농업(精緻農業), 의료(醫療照護), 관광(觀光), 문화(文化創意)를 포함함.

40) 4대 스마트산업은 클라우드컴퓨팅(雲端運算), 스마트자동차(智慧電動車), 스마트녹색건설(智慧綠建築), 발명특허산업(發明專利產業化)을 의미함.

41) 대만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強輔導台商回台投資措施)’.

42) 기업의 자체 브랜드 여부, 제품의 글로벌 시장 판매와 생산 여부, 고부가가치 상품 또는 부품 여부, 대만 자본의 글로벌 기업으로 대만에 R&D센터 혹은 경영본부 존재 여부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

행되며, 토지용지에 관한 컨설팅은 경제건설회, 경제부, 국가과학회, 각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투자계획서는 대만경제부에 제출하고 대만경제부에서 투자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투자자가 인재나 대출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유턴 지원책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인력과 토지제공 정책이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턴기업의 경우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 확대를 위해 투자 성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5년간 고용세 면제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⁴³⁾ 또한 숙련된 기술인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직자 직능훈련, 글로벌 인재 육성을 시행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2년 11월 '대만기업 유턴투자 추진방안(加強推動台商回台投資方案)'의 시행 결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관련 정책은 2014년까지 수행되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그 이후 관련정책이 추가로 발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나 대만 유턴기업의 투자실적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대만정부는 고부가가치 관련 산업을 선정하여 유턴을 지원했다. 주요 장려산업의 20대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으로 한정했다.⁴⁴⁾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제조업, 전력설비 제조업, 금융 및 보험 업 등 유턴 장려 20대 업종과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10개를 발표했다(Lim and Yeo, 2013). 실제로 5년간 대만으로 유턴한 대부분의 기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일어

43)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대만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먼저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그 후에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를 납부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고용세를 감면해 주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을 35에서 40%까지 확대하고 현행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총 체류기간을 12년까지 연장가능한 법이 2012년 11월 발표될 전망으로 보고되고 있음(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12.10.17.) 『대만, 외국인노동자비율 40%로 확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7042>.

44) 대만경제연구원, 양안발전연구원센터, 진화승(陳華昇) 주임, 범매의(范玫宜)연구원 인터뷰(2018.5.17.).

났다. 대만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만 내 R&D센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이 관련 산업에 투자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대만기업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내 R&D센터를 건설하여 정부의 도움으로 기술발전을 하는 것이다. 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유턴지원의 혜택이었던 토지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인재도 부족⁴⁵⁾한 실정이므로, 유턴기업의 투자유인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⁴⁶⁾

최근 몇 년간 대만 정부는 정부주도의 새로운 산업 진흥책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투자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⁴⁷⁾하고 있으며,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은 대만정부의 국내투자확대를 위한 촉진 정책과 산업발전 정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비 절감(과학공단내 임차료 동결, 일반 공단 내 조건부 임대료 면제, 고정자산 내용연수 단축 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 공단의 경우 임대료를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선납한 임차료는 차액을 환불해 준다. 그 밖에 일반 공단에 입주한 건폐율 30%이상 입주사에 한해 2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현행 평균 7.7년에서 전면 단축하여 법인세를 절감해주고 있다.⁴⁸⁾

또한 대만정부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 주력산업기반 산업구조 개편(Smart Taiwan)과 R&D 및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산업트렌드 변화 흐름을 반영한 7대 신산업⁴⁹⁾을 선정하여 내수확대, 현지 산업내 연계성 강화,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전략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경제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클러스터⁵⁰⁾를 추진하고 있는

45) 大紀元(2013.02.18.), 「台經建會主委：人力 台商回台大挑戰」.

46) 중화경제연구원, 대륙경제연구소장, 류맹준(劉孟俊) 소장 인터뷰(2018.5.16.).

47) <https://investtaiwan.nat.gov.tw/homePage?lang=eng>.

48) 코트라(2016), 「2017년 대만진출전략」, p10.

49) 사물인터넷, 녹색에너지(태양광), 바이오테크, 스마트기계, 방위(항공우주), 신 농업, 자원순환.

50) 대표적으로 북부지역에 '新竹(新竹)사이언파크'를 중심으로 대만판 실리콘벨리를 조성하여 IT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타오위엔(桃園)을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기지'를 조성하여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국가바이오테크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크를 중점육성하고 있음. 중부지역에는 스마트기계와 항공우주산

대 북부지역에 아시아 실리콘 벨리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산업 발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차잉원 정권은 대만의 주력산업(ICT 산업)에 기반하여 하이테크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개편과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관련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국내기업과 국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기업 역시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기업의 유턴이 어려운 이유로 투자환경과 투자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⁵¹⁾ 또한 대만의 유턴실적은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즉, 초기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이 크게 성공한 요인에는 대만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2008년 당시 마잉주(馬英九) 정권시 양안관계가 좋았던 정치적인 이유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2016년 5월 차잉원(蔡英文) 취임 이후 양안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⁵²⁾를 보이면서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실적은 영향을 받고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될수록 대만기업의 유턴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⁵³⁾

한편, 대만정부는 최근 미중통상분쟁에 따른 대만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했다. 대만행정원이 2018년 11월 발표한 ‘대만기업 투자환영행동방안(歡迎臺商投資行動方案)’⁵⁴⁾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은 기업(중국 본토에 진출한지 2년 이상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정책시행 결과 리쇼어링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⁵⁵⁾ 2019년 5월 기준 경제부 투자업무처(投資業務處)는

업이 밀집되어 있어 ‘스마트기계 거점도시’ 조성되어 있고 남부지역에는 녹색에너지 R&D를 중심으로 국내 업계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

51) 工商時報(2018년 2월 22일) 「台商：政策配套沒做好回台投資難」.

52) 차잉원 정권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대하여 항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마잉지우(馬英九)시절의 친미(親美), 우일(友日), 화중(和中)정책에서 연미(聯美), 친일(親日), 원중(遠中)으로의 외교 기조 전환을 통하여 미, 일과 친하게 지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기조를 나타내고 있음(CSF중국전문가 포럼 「차이잉원 정부의 탈 중국화와 양안관계 변화」 (2016.12.05.)).

53) 해협교류기금회, 라희가(羅懷家) 부비서장, 리원청(李源清) 경제무역처 과장 인터뷰 (2018.5.17.).

54) http://www.obu.com.tw/news_04_20181130.php.

55) https://udn.com/news/story/7238/3777516?from=udn-ch1_breaknews-

66개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투자안건을 승인(총 투자액이 3,300억 대만달러)했으며, 2019년 리쇼어링 누적 투자액이 6,0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⁵⁶⁾ 2019년 6월에는 '대만기업 투자환영행동방안2.0(歡迎臺商投資行動方案2.0)'을 추가로 발표하여 리쇼어링 기업의 보조금 혜택 범위를 대만 본토기업(根留企業)으로 확대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국, 유럽 및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 및 정책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저임금 활용을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 중 일부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리쇼어링은 기술집약적인 산업 또는 고객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주로 관찰되었다. 리쇼어링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우 개도국의 임금 상승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오프쇼어링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품질 관리 및 감독 비용, 선진 기술 전달의 어려움 등 질적인 측면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대만 기업들은 본국에서 선진기술에 접근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그리고 R&D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추진하였고, 유럽은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 혁신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 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장려하였다. 한편,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은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원정책을 시행한 점이다. 또한 신형 산업 및 스마트 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R&D 센터 설립 및 R&D 분야에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제공

1-cate6-news.

56) <https://www.economic-news.tw/2019/06/taiwan-invest-2019.html>.

함으로써 대만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활발히 지원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대만의 유탄기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만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은 국내 복귀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자국의 기술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대만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쇼어링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관찰되고 또한 노동집약적이라도 본국의 높은 임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의 자동화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노동의 존도를 낮출 때 고임금 국가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과정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기업이 리쇼어링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본국에서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유탄기업지원법 혜택을 받아 리쇼어링한 기업은 2014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71개이며 6년간 지원된 국가투자보조금은 215억원에 이른다.⁵⁷⁾ 유탄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주의 기업은 해외영업장의 투자를 일부 철수해야 하는 등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에서 사용된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더 협소하기 때문에 유탄기업의 숫자를 해외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유탄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2020년 3월부터 개정된 유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탄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업으로 확대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리쇼어링 관련 정책에 대한 향후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유탄기업지원법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및 제조업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감안

57) 허정원, “‘U턴’해도 심사 문턱...보조금 수혜 6년간 10곳뿐.” 중앙일보, 2020. 6. 16.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040>.

할 때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산업의 리쇼어링은 대개 자동화설비를 수반하므로, 리쇼어링의 성과를 일자리 창출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리쇼어링으로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것 또한 리쇼어링의 제한적인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못하다. 기업의 생산망 관리 차원에서 해외생산이 더 합리적이라면 이를 고수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더 이득이며 생산성 높은 기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약 3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두 배에 이르므로 제조업강화의 유인 또한 적다. 따라서 리쇼어링 정책은 좋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오고자 할 때 그 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경영생태계에 순기능을 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업종과 국적이 크게 차별을 두지 않는 지원제도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투자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제도는 투자를 크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외국인직접투자, 국내기업에 의한 투자로 분류하여 유사한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구분에 따라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편법을 사용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 투자별 지원 편차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투자지원이 조세수입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투자지원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건강한 기업이 리쇼어링 하고자 할 때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수요 및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리쇼어링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따라 다른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부품과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예와 같이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같은 업종과 부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기업과 유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해외임금 상승으로 인해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국내복귀보다는 임금이 저렴

한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투자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 일자: 2020. 11. 3.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12. 16. 게재 확정 일자: 2020. 12. 22.

◆ 참고문헌 ◆

- 유재민 (2013), 『U턴기업 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686. 국회입법조사처.
- You, J. (2013). *Significance and Future Tasks of the Enactment of support for the U-turn Act*, Issues and Perspectives 686,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이종인 (2017), 『국내외 리쇼어링(기업유턴) 정책 평가와 시사점』, 여연포커스, 2017-01, 여의도연구원.
- Lee, J. (2017), *The Policy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Reshoring Policies*, YDI Focus, 2017-01, Seoul: The Yeouido Institute.
- 임민경·여지나 (201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연구자료 1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Lim, M., and J. Yeo (2013), *Reshoring Pattern-Analysis of China Based Korean Firm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PA 13-03,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Alcacer, J., and M. Delgado (2013), "Spatial Organization of Firms and Location Choices Through the Value Chain," Working Paper 13-025,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 AT Kearney (2014), "The Truth About Reshoring: Not What It's Cracked Up to Be," Chicago, IL: Author.
- Bailey, D., and L. Propriis (2014), "Manufacturing Reshoring and its Limits: the UK Automotive Case,"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7(3), 379-395.
- Berry, H. (2014), "Global Integration and Innovation: Multicountry Knowledge Generation within MNC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5(6), 869-890.

- Blanchet, M., T. Rinn, G. V. Thaden, and G. D. Thieulloy (2014), "Industry 4.0: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How Europe Will Succeed," Munich, Germany: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 Cohen, M. A., and H. L. Lee (2015), "Global Supply Chain Benchmark Study: An Analysis of Sourcing and Re-structuring Decisions, Supply Chain Navigator," Available from <http://scnavigator.avnet.com/article/april-2015/gl>.
- Dachs, B., and C. Zanker (2015), "Backshoring of Production Activities in European Manufacturing," MPRA Paper No. 63868, Munich, Germany: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 Department of Investment Services,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2009), "Enhancing Investment Policy for Taiwanese Return Businesses," Taipei: Author.
- _____ (2010), "Promoting Investment Policy for Taiwanese Return Businesses," Taipei: Author.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4), "Reshoring of EU Manufacturing, Brussels, Belgium," Author.
- Gray, J., K. Skowronski, G. Esenduran, and M. Rungtusanatham (2013), "The Reshoring Phenomenon: What Supply Chain Academics Ought to Know and Should do,"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49(2), 27-33.
- Grossman, G., and E. Rossi-Hansberg (2008), "Trading Tasks: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78-1997.
- Heikkila, J., M. Martinsuo, and S. Nenonen (2018), "Backshoring of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a Small and Open Nordic Economy," *Journal of Manufacturing Technology Management*, 29(4), 658-675.
- Kinkel, S., and A. Jäger (2017), "Auslandsverlagerungen, Rückverlagerungen und Digitalisierungsverhalten in der deutschen Industrie. Trends und Auswirkungen für den Produktionsstandort Deutschland, Karlsruhe," Germany: Hochschule Karlsruhe - Technik und Wirtschaft.

- Kinkel, S., and S. Maloca (2009), "Drivers and Antecedents of Manufacturing Offshoring and Backshoring - A German Perspective," *Journal of Purchasing & Supply Management*, 15(3), 154-165.
- KOTRA (2016), "Taiwan Entry Strategy 2017," Seoul: Author, p10.
- Muller, J., V. Dotzauer, and K. Voigt (2017), "Industry 4.0 and its Impact on Reshoring Decisions of German Manufacturing Enterprises," *Supply Management Research. Advanced Studies in Supply Management*, 165-179.
- 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Progress i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Manufacturing Leadership," Washington, DC: Author.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Washington DC: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Oldenski, L. (2015), "Reshoring by US Firms: What Do the Data Say?" Policy Brief, PB15-14,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tefano, D., L. Fratocchi, and L. Iapadre (2018), "Manufacturing Reshoring: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L'Aquila, Italy: University of L'Aquila.

The Reshoring in the U.S., Europe, and Taiwan*

Hyelin Choi** · Sooyoung Lee*** · Minsuk Park****

Abstract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dvanced countries recognize that manufacturing industry is important for stable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s try to attract offshoring firms to bring back to the home country to reviv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paper investigates reshoring cases and policies for the U.S., Europe, and Taiwan. The analysis revealed that U.S. and Europe governments provide attractive environments for firms such as low oil prices, good infrastructure, high-technology strategy etc., and Taiwanese government provides customized policies by connecting research institutes and reshoring firms and thus allowing them to have access to cutting-edge technology.

KRF Classification : B030103, B031003

Key Words : Reshoring, U.S., Europe, Taiwan

* This work is a revised version of the 2018 research paper 『Determinants of Reshoring and Effectiveness of Reshoring Policies』 of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06978, Korea, e-mail: hlchoi@ssu.ac.kr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Economics Department,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 300 Pultney St, Geneva, NY 14456, USA, e-mail: sooyoung.a.lee@gmail.com

**** Second Author, Senior Researcher, Chinese Economy and Trade Team, Chinese Economy Departm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e-mail: mspark@kiep.go.kr